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강의 15, 조류가 바뀌다, 에스겔 33:1-33

© 2024 레슬리 알렌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5부, 조류가 바뀌다, 에스겔 33:1-33입니다.

이제 33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이 지점과 그 다음 장들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에스겔과 그의 동료 포로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이 장의 뒷부분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의 끝 부분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과 일치하여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새로운 단계, 즉 반전을 다루시는 일, 징벌적인 보복 이후 은혜로운 갱신을 시작하는 서막임을 발견합니다.

심판은 지금부터 구원에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에스겔의 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단순한 반대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의 헌신과 의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했듯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해야 합니까? 결코 아니다. 따라서 2-11절과 12-20절의 두 개의 작은 메시지로 구성된 33절의 1-20절에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전히 심판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j로 표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게 되며 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에는 다음 장에서 다가오는 구원에 관한 장엄한 진술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33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심판이라고 부르는 다른 음표와 작은 j로 뒤섞여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는 절대적인 심판, 급진적인 심판, 모든 것의 시작 전의 종말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중요한 요소, 즉 예루살렘이 살아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의 종말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주요 초점과 함께, 우리는 실제로 587년 이후 예수님의 메시지에 속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에스겔. 그리고 그들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은 587명의 유배자들이 직접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597명의 유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장부터 24장까지의 작은 주제였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도덕적, 영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긍정적 유대, 즉 양면 관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의 제2판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책은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33장의 첫 부분에 올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읽었거나 그로부터 발췌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일부 발췌문을 읽었고 18장에서 다른 발췌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대순으로 적절한 위치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전체의 관점에서 이것은 독자들이 이미 3장에서 읽은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18장에서는 은혜에 끈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유배자들은 유배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유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선물이 그들의 무릎에 떨어질 때까지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멍하니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희망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구원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문자 J를 사용한 심판은 끝났지만 에스겔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직 만나지 않을 전망, 즉 작은 j를 사용한 심판의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판단이 여전히 하나의 요소이지만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급진적인 판단과 다른 유형의 판단의 차이는 의사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에게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것은 급진적인 판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환자가 찾아오면 의사는 그 환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경고하고, 담배를 끊고, 운동하고,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쁜 예후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경우 치료할 수 없었던 것, 피할 수 없었던 것,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실제로 피하고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수준이 아닌 개인 및 그룹 수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587년에 죽었고, 그 생존자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같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부활의 은유를 통해 이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 땅의 회복과 유배에서 돌아온 것과 일치하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도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의 즐거움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그 대가로 다가올 삶의 충만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 장들에서 죽음에 대해 점점 더 강조되는 것에 비해, 이제 이 살아 있다는 단어는 유다 포로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일련의 약속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판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사고방식을 다른 신약성서의 사고방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절 모음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면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섭리적인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분명 고린도에는 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며, 일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의 일환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j가 붙은 이 판단은 신약성경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말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짝히리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저 감람나무에서 짝히리라

그리고 아마도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지금 읽게 될 내용, 필요한 경고, 일종의 파수꾼이자 보초인 저자의 경고 중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2절부터 9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의 새로운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3장에서 읽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은 포로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땅에 머물도록 돕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될 희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곧고 좁습니다. 그의 옛 임무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요약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바벨론 군대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마치 불치병으로 인한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선지자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피하고 삶의 기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의사의 경고처럼, 망명자들에게는 여전히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6절 “인생아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는 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 땅 백성이 자기 수 중에서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삼고 파수꾼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며 백성에게 경고할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하지 아니하다가 칼이 임하여 그들을 제하면 그 피가 돌이 될 것이요 그들 자신의 머리.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을 경고하지 아니하여 칼이 임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을 멸하면 그들은 그 죄악 중에서 제하여지려니와 내가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3장에서 읽은 내용의 더 긴 버전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감시하고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경보를 울리도록 보초를 임명하는 국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비유에는 적의 공격이 신성한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에서 이러한 섭리적 공격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죄 많은 공동체나 공동체 내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경보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남아 농작물을 가꾸고 있었다면, 그들이 붙잡혀 죽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파수꾼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만일 그가 임무를 게을리하고 경보를 울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의 잘못이 될 것이고 그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유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짓고 심판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지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경보를 울리는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부터 9절까지에는 제가 비유라고 부르는 이 확장된 은유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너 죽을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느니라.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서 그들을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한 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니 너희가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구원하리라.

따라서 이 비유를 적용할 때 에스겔은 실생활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에스겔 자신에게 심각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원서에서 그를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의 은유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파수꾼을 임명한 것이 공동체였지만, 여기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지자를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 경고할 누군가를 제공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죄를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10-11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어적인 역할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너희 죽을 자들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엮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쇠약해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리요?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구절은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이 사실상 죽었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절망하고 쇠약해졌다는 포로들의 인식에 도전합니다.

아니요, 망명 중에도 살 기회가 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좋은 생활 방식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남고 번영할 것입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삶이 땅으로의 회복,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살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덕적, 영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과도 같은 유배의 경험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결코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j로 심판하시는 심판관으로서의 징벌적 역할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전에 18장에서 읽은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3장과 3장의 일부, 18장의 일부는 연대순으로 여기 33장에 속하는 자료를 분할한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을 포함하는 다음 메시지도 18장의 자료를 매우 밀접하게 사용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16절에 새 사람이 주의 백성에게 이르되 의인이 범죄할 때에는 그 의가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악인의 악은 그 악에서 돌이킬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 의로 살 수 없느니라.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살리라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다시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전당물을 갚으며 약탈한 것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들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공부한 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유배자들은 인생이라는 여정에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왔다면, 그리고 그 올바른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참으로 생명에 대한 약속과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서 벗어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단번의 선택은 없습니다.

어제의 도덕적 승리는 오늘과 내일 선의 편에서 싸워야 하는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의 도덕적 패배가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바라시는 것, 즉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명입니다. 15절을 보면 좋은 생활방식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주는 율례를 준행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레위기 18장 5절의 18장에서 아주 크게 어렵פות이 드러났던 본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에스겔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전의 제사장 가르침에서 따온 제사장-선지자임을 봅니다.

그런 다음 17~20장은 그 일이 10~11일에 일어났고 그 일이 17~20일에 다시 일어났다는 유배자들의 인식에 도전함으로써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주님의 길이 공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길일 때 말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당신은 주의 길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모두를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망명자 자신의 인식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탕자와 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면서 신자들의 이전 헌신을 잊어버리신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지는 재확인되었고, 추방자들은 지금의 나쁜 모습을 유지하려는 핑계로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엄숙히 경고합니다. 2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로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이 생존자가 있으니,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자니라.

그리고 그는 노동 수용소까지의 긴 여행을 가까스로 해냈고,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그것이 1절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1절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나요? 글썄요, 그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 특별한 사건에 적합하며 사실 이 생존의 도래에 적합합니다. 날짜는 실제로 585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소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587년에 함락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586년에 함락되었다면, 585년 1월 이 날짜에 바빌론에 도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거기 날짜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21절과 22절의 날짜를 장의 맨 처음 부분에 놓지 않았는지 묻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패턴에서는 새 섹션이 시작될 때 날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아마도 장소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에스겔이 좋은 소식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을 듣는 유배자들을 위한 단서가 있다는 1절부터 20절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소식에는 좋은 삶의 의무가 따른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생존자가 나타난 사건과 매우 일치했지만 처음에 언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3:1부터 19까지의 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섹션에서 이 순서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에는 살아남은 자가 나타나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중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22절에서는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도망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와 손을 내게 임하셨더니 그 도망자가 올 때에 여호와께서 내 입을 여셨더라 아침에 나에게 왔으므로 내 입이 열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전날 저녁에 오셨고, 그 때에도 에스겔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책 앞부분에서 라이트백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다시 입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건의 상징입니다.

이 자유로운 발언은 앞으로의 삶의 메시지와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놀랍고, 그가 더 이상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가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전달하도록 주어진 메시지는 다음 부분, 다음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포로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다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그룹, 즉 바빌로니아의 포로들과 그 땅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발전된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애가서에 등장하고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실 파멸과 파괴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배 기간 동안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물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유배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물론 포로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 황폐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위대한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이 황량한 땅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그곳도 우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고, 우리는 아직도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명자들에게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실제로 비난입니다. 이 심판의 신탁에는 비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신호의 말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메시지는 망명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뜻의 섭리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격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의 앞부분 11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에스겔 사역 2기의 일부였는데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로 밀렸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후 고국에 머물게 되었을 때입니다. 587은 그것을 증명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글쎄, 책은 지금 여기, 연대순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이런 유형의 반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영적인 교훈에 도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저 유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말했듯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옛 전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설교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나쁜 설교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25절과 26절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거기에 이교가 있고 피를 흘렸다고 하라.

그래서 587년 이후 그 기간에 유다 땅에는 유혈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당신은 당신의 칼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가증한 일을 저지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강한 반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기울어지지 않고, 당신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활 방식은 당신의 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방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수사적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토지를 소유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칼에 의존했습니다. 그 실용적인 시험, 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실용적인 시험은 그들이 영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는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그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황폐한 곳에 있는 자들은 정녕 칼에 쓰러지리라. 들에 있는 자들을 내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요새와 동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여 그 교만이 멸절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들은 너무 황폐하여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하게 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7-29절에는 매우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6장 후반부에 나오는 저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22절에서 나온 것 입니다.

또한 27절에서 다시 역병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레위기 26장 2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28절은 그 교만한 세력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레위기 26, 19절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의 교만한 영광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8절에는 황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26절과 33절에서 나오는데, 너희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들이 황무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사장 전통에 의존하게 되었고 레위기 26장의 저주, 즉 언약의 저주가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저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생활, 곧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한 나쁜 생활에 대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그것은 망명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끔찍한 논쟁에서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그는 우리 편이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30-3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여기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기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는 경고가 있지만 그는 죽음 대신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비참한 삶 대신에 좋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절. 또 멸성인 네 백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노동 수용소에서 서로에게, 각기 이웃에게 이르되 와서 들으라 하느니라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집으로 가서 집 안에나 문간에 모여들고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네게로 와서 내 백성으로서 네 앞에 앉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최초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입술에 아침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아, 그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가능할 때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이익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 각자 자신을 위해 나가고 있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것을 좋아합니까? 32절. 그들에게는 네가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자 같으니, 목소리도 아름답고 악기도 잘 타는 자 같으니라.

당신은 연예인입니다. 당신은 이 마을의 새로운 연예인이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모든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콘서트에 오고 있어요. 그들은 콘서트 관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놀라운 연예인입니다. 당신은 팝스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귀에는 음악과 같습니다. 당신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특히 33의 첫 부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문회는 선택적 청문회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은 들었지만 조건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장의 앞부분에서 말하라고 들었던 세기의 비유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절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들어도 경고하지 아니하며 듣기는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각, 중요한 청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청각,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진정한 청각입니다. 아, 우리는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31년에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듣지 도 않고 에스겔의 말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3장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세기의 비유가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서 전원을 꺾지만 좋은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오면, 그 때에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것은 모호하고 다소 사악하지만 실제로 칼이 오고, 칼이 오고, 섭리의 심판의 칼에 대한 초기 비유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도시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에서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작이 있었던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사역을 즐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예인, 팝스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이 시점의 본문은 독자들이 1절부터 9절까지의 파수꾼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1절과 32절의 아무 효과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경보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4절과 5절의 의도적인 반향으로 작용합니다., 파수꾼 선지자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칼이 임하매 나팔 소리에 맞춰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목숨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3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오고 또 올 때라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경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심판의 칼은 비유의 앞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개인에 대해 작은
 J가 작용하는 판단이지만 여전히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은 대단했습니다.

다음에는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5부, 조류가 바뀌다, 에스겔 33:1-33입니다.